

부평 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

Tel: 032) 510-5009



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과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 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의료 사도직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1986년 3월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고자 내과병동에서 내과 분야 종양학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암 환자간호 집담회를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1987년에 호스피스 활동은 의사, 간호사, 원목실이 한 Team이 되면서 월 2회 모임을 하면서 호스피스 활동 사례 발표를 실시하였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병실방문, 가정방문을 시작하면서 1988년 봄에 간호감독인 김명희 간호사가 영국에서 6개월 연수를 다녀오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임종환자와 그의 가족들 위한 호스피스 병실과 임종 방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호스피스 활동은 호스피스 담당자, 의사, 간호사, 원목자, 자원봉사자가 한 Team이 되어서 팀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사회사업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Team의 일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자와 그의 가족들의 질적인 삶을 위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팀 활동으로 팀 구성원들은 월 2회(1, 3주 월요일)에 팀모임을 가져 호스피스과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정보와 사실을 공유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팀 모임에서는 앞으로 호스피스과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알리고 서로 분야에서 협조를 구하며 환자를 만나면서 의문점 애로사항 등을 서로 질문하여 팀 구성원들끼리 해결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24명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은 다양하다. 환자를 직접 돌보아 주는 신체간호 즉 목욕시키기, 머리 감기기, 침상정리, 산책시 도

와주기, 자세 변경 등이며, 영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는 함께 기도하기, 성경 읽어 주기, 영적 위로 등이며, 가족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가족들을 대신하여 환자를 돌보아 주기, 방사선 치료하러 갈 때 보호자 역할, 가족들이 지칠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보아 주기 등이며, 환자가 퇴원했을 경우 가정방문을 하여 환자와 가족들을 도와준다. 유가족들을 위한 활동으로는 환자가 사망한 후 함께 기도해 주고, 장례식 참석, 장지 참석,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전화 및 편지 보내기, 유가족 위로 방문 등이다.

호스피스과에서는 매년 새로 시작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현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는 매월 1회(3째 월요일)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의 영적인 삶을 위해 매년 1회 피정과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 월례교육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상담기법, 실제적인 신체간호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우며 봉사하면서 느낀 점이나 어려운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호스피스과에 대한 홍보로는 직원 교육, 신규간호사 교육 등을 실시하며 팀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호스피스 팀 모임을 하며 환자 및 가족 상담도 함께 하고 있다.

2000년 실시한 활동으로는 매월 월례교육과 더불어 5월에는 신규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13명의 신규 봉사자를 뽑았고, 6월에는 강화에 있는 예수성심전교수도원으로 피정을 다녀왔다. “예수성심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봉사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순수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때론 지치지만 우리들이 하는 호스피스활동이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좋은 피정을 다녀왔다.

9월초에는 병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배른 성지로 다녀왔다. 순교자들의 뜨거운 신앙의 삶을 본받아 일상의 삶에서 더욱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다. 호스피스 활동은 한 인간이 자신의 전 생애를 마무리 할 때 만나는 대상자들이기에 보다 깊은 만남과 헌신적인 봉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므로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깊은 신앙과 생의 철학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며, 대상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함께 해 주는 활동이기에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월에는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그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공유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모자애병원 호스피스과는 인천지역에서 아직 우리 나라에서 호스피스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1986년도 제일 먼저 활동을 시작하였고, 처음부터 팀 활동으로 이루어졌기에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남은 가족들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병원에서 입원하여 호스피스과의 도움을 받은 많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들을 통하여 널리 알 려지게 되었고 인천지역 사람들에게 호스피스과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호스피스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 내에서 발행되는 병원원보를 통하여 호스피스과 홍보를 하고 있다. 호스피스과 자체에서 발행되는 팜프렛을 통한 호스피스 활동 홍보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로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호스피스 활동의 중심이기도 하다.

의정부 성모병원 호스피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1

Tel: 031)820-3357

▶ 호스피스활동의 의미

가톨릭 중앙으로원의 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하며 특히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영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 보살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남은 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도록 도우며 내세 대한 희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사랑으로 돌본다.

▶ 형태

산재형이며 1인실 2개를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 환자의뢰 절차

주치의, 수간호사, 환자 혹은 보호자 추천서

호스피스파로의뢰



환자와 보호자 면담



신청서작성



사회사업팀, 호스피스 접근

▶ 주요활동

1. 봉사자 관리

1) 교육

- ①호스피스 기본 교육 년 1~2회
 - ②봉사자 월례 교육 및 재교육
 - ③신규 봉사자 오리엔테이션 3개월
 - ④외부강사 초빙 교육 (전문지식: 상담, 림프부종관리, 발반사요법등)
 - ⑤외부교육 참가
 - ⑥환자 사례 발표
 - ⑦면담
- #### 2) 여성 훈련
- ①년 1 회 피정
 - ②년 1 회 성지 순례
 - ③년 2 회 친교 시간
 - ④주1회 봉사자 팀모임 (훈화, 환자에 대한 기록 및 활동 보고와 문제점 토의)

2. 환자 관리

- 1) 병실방문 : 말기 환자와 보호자 돌보기, 기도, 상담, 대세및 세례받은후 본당연결, 임종 후 연도, 입관예절, 장례미사참례및 장지수행등
- 2) 가정방문 : 퇴원후 가정 방문하여 돌보기, 특히 동두천 지역의 봉사자들이 퇴원환자 방문하여 신체간호 가사일 돋기 등의 활동을 하며 기도 및 입교안내
(내원시) 차량 봉사, 약타다주기 등을 하고 있음.

3. 팀 관리

1) 구성 :

- ①사목자, 종양전문의, 각병동 수간호사, 영양사, 사회사업과, 봉사자(팀장)
- ②월 2 회 팀모임을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지지한다.

4. 사별가족 관리

- 1) 사별가족 모임 : 년 2 회 사별가족 모임을 통해 서로의 체험을 나누며 아픔을 이해함으로서 서로를 지지하여 돋는다.
- 2) 사별가족을 방문 또는 전화 방문하여 슬픔을 잘 극복하고 사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 준다.

